장소 경험 분석을 통한 도시 내 장소성 특성 연구[†]

임승빈* · 정윤희** · 허윤선** · 권윤구** · 변재상*** · 최형석****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A Study on the Types of Experiences Related to Sense of Place in Cities

Im, Seung-bin* · Jeong, Yoon-hee** · Hue, Youn-sun** · Kwon, Yoon-koo** ·
Byeon, Jea-sang*** · Choi, Hyu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Singu University

****Dep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University of Suw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experience of a notable sense of place in five cities - Seoul, Gyeongju, Chuncheon, Anseong and Gwacheon. A survey targeting 300 citizens was carried out to survey meaningful, memorable places and measured spatial experiences in those places. The types of spatial experiences were divided among place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thereof.

To do this, first, those places that have a notable sense of place have relevance in na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such as parks, cultural assets, etc. Second, the main experiences in making sense of place included 'relaxation and walking' and 'a view and appreciation'. These were divided into two types, Spatial Contact and Human Contact. Third, cities such as Seoul, Anseong, Gwacheon offer a variety of experience in places having a notable sense of place. Fourth, in cities noted for natural landscape, history and culture, those spaces with a notable sense of place a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They exhibit a variety of behaviors, complexly and simultaneously.

These results-based spatial experiences of citizens and spatial character have important meaning for city identity and city marketing. Through defining those places that have a notable sense of place and understanding the spatial features in these places, this study can suggest basic information for forming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ity.

Key Words: City Identity, Spatial Behavior, Spatial Experienc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경주시, 춘천시, 안성시, 과천시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경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도시의

[†]: 본 연구는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84749).

Corresponding author: Yoon-hee Jeo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86, E-mail: yhjung1@snu.ac.kr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의미있게 기억하는 장소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측정하고, 그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소성의 경험유형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소성이 높은 장소는 대체로 공원과 문화재 등의 자연적·역사적 도시자원과 관련이 있다. (2) 휴식 및 산책, 조망 및 감상의 경험이 장소성 형성의 주요 경험이며, 이들은 다시 공간경험 중심형과 교류경험 중심형으로 구분된다. (3) 서울시, 안성시, 과천시 등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각각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4) 경주시, 춘천시 등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이 특화된 관광도시의 경우, 장소성 높은 장소가 공간적으로 도시의 중심에 집중되며, 그 장소에서 다양한 행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장소에 대한 도시민의 경험과 각 장소의 특성, 도시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마케팅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도시에서 장소성 높은 곳을 찾아내고, 각 공간에서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도시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성이 없는 도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특화요소를 조성·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 내에서 장소성 높은 공간의 분포는 도시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시정체성, 공간이용행태, 공간경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소가 지니는 특성은 장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곳과 깊이 연루된다는 느낌을 준다(Relph, 1976). 하지만 최근 지역커뮤니티, 도시, 경관의 계획은 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연결성을 무시한 채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도시는 인구과밀, 생활환경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기능적 문제해결에만 급급하여 획일적 모습의 도시들이 양산되고 있다(임승빈, 2007; 변재상, 2005; 변재상 등, 2006). 이와 같이 장소의 다양한 특성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Relph(1976)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무장소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도시 내 장소성 높은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소성의 유형을 분류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연구한 바 있다(Schulz, 1972; Relph, 1976; Yi-Fu Tuan, 1979; Steele, 1981 등). 장소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장소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한 현상학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다 장소성이 풍부한 장소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장소성 높은 공간'과 같이 장소성의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소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없으며, 실제로 도시 내에서 장소성 높은 공간이 어디인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된 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장소성이 높은 공간이 어디인지를 도출함으로써, 장소성이 풍부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어떠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장소성은 도시 내 일정 장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대한 의미이므로(홍성희 등, 2011), 인간의 경험이 장소성 형성에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물리적 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즉, 경험을 통해 낯설은 추상적 공간(space)이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place)가 되며, 이때 그 장소에서 '장소성'이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경험, 장소의 특성, 시간, 가시성 등이 결합되어 장소성이 형성되면 그 곳에서는 특정 경험이 반복되면서 장소의 외부와는 상이한 행태 패턴이 나타난다(Yi-Fu Tuan, 1977). 장소성을 느끼는 과정을 환경심리학의 자극-반응과정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특정 공간에서 자극을 받아 지각하고 인지하여 태도를 결정하고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장소성인 것이다. 환경 반응은 크게 행태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태적 반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행태적 반응은 물리적 조건 즉 환경 계획 및 설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정적 반응은 개인적, 사회적 조건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장소성의 형성 여부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시 및 환경설계 분야에 장소성이 풍부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장소 및 장소성 개념 연구

장소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1970~80년대에 시작되어 주

로 수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장소 및 장소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장소 및 장소성의 개념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렐프(Relph, 1976)는 장소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물리적 조건 · 행태 · 의미가 있으며, 장소성은 이들 요소가 공간적 · 시간적 맥락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입장에서 '실존적 공간'으로서 장소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공간이론가 슐츠(Schulz, 1980)는 장소는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 구체적 실존으로서 존재적 의미를 모으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소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푸 투안(Yi-Fu Tuan, 1979)은 시선을 끄는 안정적인 대상을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스틸(Steele, 1981)은 장소성은 특정한 소환경에서의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말하며, 소환경에서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으로 공간과 관련된 감정, 인식, 행동을 포함한 상호작용의 개념이라 하였다. 이처럼 주요 연구자들은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장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 현상학적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다. 주요 연구자들의 장소성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활동이 반복되면서 의미가 부여된 곳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장소성의 형성과정과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으나(Entrikin, 1991; 이석환과 황기원, 1997; 백선휘, 2004; 김연균, 2009; 임승빈, 2009 등), 이는 장소 및 장소성에 대한 학술적 · 개념적 연구로 실제 도시 및 환경계획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성에 대한 개념 중 '반복되는 활동' 즉 장소성 높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및 행태를 고찰함으로써 장소성 높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장소성 측정 연구

앞서 장소 및 장소성 개념 연구들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장소 및 장소성은 현상학적 개념으로 형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논 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 관련 분야에서는 '장소성이 높은 장소', '장소성이 풍부한 장소' 등과 같이 장소성의 형성 정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장소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평가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크게 정성적 평가에 관련한 연구와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장소성의 형성에 대한 연구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장소에 대한 정성적 평가(장성주, 1986; 김연균, 2005; 김지연 2006)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 장소성을 구축하고 회복하는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장소성의 형성과정 및 결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의 장소성을 실제적으로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 마저도 장소성이 풍부하게 잘 형성되어있는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소성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Thornquist, 1992; Patterson, 1992; Brown & Raymond, 2007; 김효주, 2008 등), 장소성의 형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면접조사 및 개방형 설문 등을 통해 장소성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인 장소애착과 장소정체성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소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장소성을 측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인 장소성형용사를 도출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3. 도시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여러 연구에서 도시유형을 분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문희(1989), 김정태 등(2007), 김형철(2010), 김오형과 이명훈(2010) 등은 인구, 사회, 활동, 시설,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 특성 등을 고찰하여 도시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통한 도시별 환경 특성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변재상(2005)은 도시의 기능, 정체성, 형태에 대하여 도시유형을 분류하였고, 변재상 등(2006)은 도시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기초로 도시유형을 분류하였다.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도시이미지 측면의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경험 및 행태를 중심으로 장소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하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에 기초하여 도시별 장소성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장소성은 공간에 대한 개인적 지각과 인지에 대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도시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만한 장소성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공장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소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으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에 활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공간행태 및 공간경험은 유사한 의미로, 장소에서 특정한 의도를 지닌 행동 및 행동 패턴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필요조건을 의미한다.

2. 조사대상지 선정

표 1. 연구 대상 도시

구분	도시규모	인구수(명)	면적(km ²)	주요 산업	행정구역
서울시	대규모	10,456,000	605	3차(서비스업)	25구
경주시	중규모	268,695	1,324	2차(광공업)	4읍, 8면, 11동
춘천시		265,423	1,116	3차(서비스업)	1읍, 9면, 15동
안성시	소규모	177,209	554	2차(광공업)	1읍, 11면, 3동
과천시		72,084	36	3차(서비스업)	10동

도시규모(인구), 도시기능(산업유형), 도시면적, 분포 다양성, 조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규모 도시로 서울시, 중규모 도시로 경주시와 춘천시, 그리고 소규모 도시로 안성시와 과천시를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2차례의 예비설문과 1차례의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 예비 설문에서는 장소성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매개 어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장소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매개 어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2010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에 걸쳐 조정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설문에서는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서 경험하는 행태를 도출하고, 1차 예비설문을 통해 도출된 매개 어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5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본 설문은 앞서 선정된 5개 도시에서 장소성이 높은 장소와 각 장소에서 경험한 행태를 도출하였다. 3차 본 설문은 2010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3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앞서 도출한 5개 도시별 시민 300명씩,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표 2 참조). 3차 본 설문을 통해 각 도시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특성을 분석하고 동시에 그 공간 형태 및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내 장소성의 경험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대응

표 2. 3차 본설문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서울	경주	춘천	안성	과천
성별	남자	129	143	151	156	86
	여자	171	157	149	144	214
연령	~30대	186	230	171	185	137
	40~50대	100	62	96	88	127
	60대~	14	8	33	27	36
거주 기간	~1년	11	58	20	55	13
	1~5년	31	85	73	77	58
	5~10년	42	47	44	43	70
	10년~	216	110	163	126	159

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¹⁾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들은 기초통계분석에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고, 대응일치 분석에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장소성 측정을 위한 매개어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어휘(형용사)를 도출하였다. 매개어휘는 선행연구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Relph(1976)는 장소성을 '의미있는', '진정한', '상징적인', '특정적인'이라는 4가지 성격으로 설명하였고, Steele(1981)은 '정체성 있는', '역사적인', '기억에 남는' 등 9가지 특징으로, 권윤구(2011)는 '의미있는', '중요한', '전통적인' 등 8가지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의미있는'이라는 특성은 여러 연구자가 장소성의 특성으로 언급하였으며, 권윤구(2011)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장소성을 설명하는 8가지 특징 중 '의미있는'이 장소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의미있는"을 장소성 측정을 위한 첫 번째 매개어휘로 선정하였다(표 3 참조).

그리고, 1차 예비설문조사에서 '장소성이 높은(의미있는)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유응답식 개방형 설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장소성 높은(의미있는) 장소를 기술한 이유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추억과 기억', '흥미', '좋은 느낌과 좋은 분위기', '여유와 휴식'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위 유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흥미'와 '여유와 휴식'은 '좋은 느낌을 주는'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좋은 느낌을 주는'이라는 매개어휘로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결과를 볼 때, 장소성은 복합적인 느낌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있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기

그림 1. 연구 방법

표 3. 장소성을 측정하기 위한 매개 어휘 선정

구분	내용		선정된 매개어휘
선행연구	연구자	장소성 특징	의미 있는
	Ralph (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 진정한 	
	Steele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있는 · 역사적인 · 환상적인 · 신비로운 · 즐거운 	
	권윤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 중요한 · 전통적인 · 매력적인 	
예비설문	유형구분	선정이유	기억에 남는
	추억과 기억 (3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억이 많은 곳 -어떤 경험의 기억이 있는 곳 -자주 갔던 곳 -만남과 데이트를 하던 곳 	
	흥미 (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곳 -볼거리, 먹거리 등이 있는 곳 -문화, 전통 등 특색 있는 곳 -상징성, 의외성을 지닌 곳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분위기가 조화로운 곳 -야경이 좋은 곳 -로맨틱한 곳 	좋은 느낌을 주는
	여유와 휴식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곳 -산책, 사색, 운동을 하는 곳 	

자료 : 임승빈 등, 2011: 70, 필자 제작

억에 남는”과 “좋은 느낌을 주는”을 장소성 측정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매개어휘로 선정하였다(표 3 참조).

2.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의 주요 경험

2차 예비설문에서는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서 경험하는 행태를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2차 예비설문에는 앞서 도출한 장소성 측정 매개변수를 이용하였다. 즉, 응답자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의미있는, 기억에 남는 장소’ 5군데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각 장소를 기입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의 경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2차 예비설문의 결과는 각 장소를 기입한 이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각 장소를 기입한 이유를 유형화하여 13가지로 구분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인 13가지 유형에는 행태와 느낌이 혼재되어 있어, 각 장소를 기입한 이유를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²⁾, 시민들이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 주로 경험하는 행태는 ‘만남(데이트, 모임)’, ‘조망 및 감상(경치, 볼거리)’, ‘휴식 및 산책’, ‘공연 및 관람(축제, 이벤트)’, ‘운동 및 놀이’, ‘쇼핑’, ‘먹거리(식당)’ 등 7가지 경험으로 구분되었다.

표 4.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의 경험 유형(2차 예비설문 결과)

구분	응답 장소	응답률 (%)	비고
만남 (데이트, 모임)	강남역(7), 삼성동(3), 홍대앞(2), 가로수길(2), 코엑스(2), 명동(2), 대학로(1), 인사동 찜지길(1), 광화문광장(1), 통의동 카페(1), 청담동(1), 압구정 로테오 거리(1), 종로(1), 신촌(1), 서울대입구역(1), 한강유람선(1), 공원(1)	29 (53.7)	행태
	가로수길(3), 남산(3), 서울타워(3), 삼성동(2), 한강둔치(2), 코엑스(2), 청계천(2), 여의도광장(1), 올림픽공원(1), 노을공원(1), 월드컵공원(1), 비원(1), 홍대앞(1), 광화문(1), 센트럴시티(1), 정자동(1), 국립묘지(1)	29 (53.7)	행태
추억	한강둔치(7), 남산(3), 광화문(2), 선유도(1), 시청앞광장(1), 홍대앞(1), 인사동(1), 삼성동(1), 명동(1), 압구정 로테오거리(1), 전쟁박물관(1), 포스코건물앞(1), 경동한약시장(1)	22 (40.7)	느낌
분위기	홍대앞(4), 삼성동(2), 이태원(2), 명동(1), 종로(1), 동부이촌동(1), 광장 및 거리(1)	12 (22.2)	느낌
휴식 및 산책	여의도공원(1), 올림픽공원(1), 서울숲(1), 공원(5), 한강(1), 서울타워(1), 종로3가 카페(1)	11 (20.4)	행태
공연 및 관람 (축제, 이벤트)	삼성동(2), 대학로(1), 가로수길(1), 여의도공원(1), 노을공원(1), 홍대앞(1), 인사동 찜지길(1), 코엑스(1), 청계천(1)	10 (18.5)	행태
개인적 느낌	한강(2), 하늘공원(1), 비원(1), 홍대(1), 63빌딩(1), 잠실(1), 선유도(1), 신촌(1)	9 (16.7)	느낌
운동 및 놀이	한강둔치(3), 공원(3), 남산(1), 여의도광장(1)	8 (14.8)	행태
쇼핑	명동(2), 동대문(2), 가로수길(1), 이태원(1)	6 (11.1)	행태
상징성	광화문 광장(2), 한강(2), 남산(1), 대학로(1)	6 (11.1)	느낌
익숙함	홍대(1), 인사동(1), 가로수길(1), 서울대입구역(1), 강남역(1)	5 (9.3)	느낌
전통	경복궁(1), 덕수궁(1)	2 (3.7)	느낌
먹거리 (식당)	녹두거리(1)	1 (1.9)	행태

* 괄호 안의 숫자는 설문 조사 결과의 빈도수를 의미함

그리고 2차 예비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본 설문의 객관식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3. 장소의 특징 및 경험 특성에 따른 장소성 유형구분

1) 도시별 장소성 높은 장소와 경험

본 연구에서는 2차 예비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5개 연구 대상 도시 시민들에게 장소성이 높은 장소와 각 장소에서의 주요 경험을 조사·분석하였다. 각 도시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5% 이상 응답)를 분석한 결과³⁾, 각 장소를 동네 및 거리, 공원, 특정건물, 산과 휴양림, 하천과 호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도시별로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

표 5. 도시별 장소성 높은 장소(피험자의 5% 이상이 응답)

	서울				경주				춘천				안성				과천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명	유형	개수	비율	장소명	유형	개수	비율	장소명	유형	개수	비율	장소명	유형	개수	비율	장소명	유형	개수	비율
1	남산	M	128	42.7	보문단지	S	166	55.3	공지천	P	210	70.0	금광호수	R	114	38.0	서울대공원	P	228	76.0
2	청계천	R	113	37.7	불국사	C	135	45.0	소양댐	R	122	40.7	허브마을	B	99	33.0	중앙공원	P	179	59.7
3	한강	R	94	31.3	안압지	C	131	43.7	구봉산	M	110	36.7	미리내성지	C	98	32.7	관악산	M	160	53.3
4	인사동	S	78	26.0	첨성대	C	99	33.0	명동	S	106	35.3	철장사	C	85	28.3	청계산	M	93	31.0
5	선유도공원	P	42	14.0	경주월드	B	87	29.0	강촌	S	102	34.0	비봉산	M	78	26.0	관문체육공원	P	92	30.7
6	명동	S	41	13.7	천마총	C	65	21.7	중도	Z	100	33.3	청룡사	C	71	23.7	경마공원	P	90	30.0
7	삼청동	S	38	12.7	김유신장군묘	C	64	21.3	강원대학교	B	74	24.7	플로랜드	B	66	22.0	시민회관	B	82	27.3
8	대학로	S	37	12.3	황성공원	P	62	20.7	남이섬	Z	64	21.3	고삼저수지	R	63	21.0	정보과학도서관	B	73	24.3
9	경복궁	C	37	12.3	석굴암	C	61	20.3	고슴도치섬	Z	47	15.7	한경대학교	B	54	18.0	양재천	R	50	16.7
10	홍대입구	S	35	11.7	남산	M	50	16.7	청평사	C	44	14.7	석남사	C	52	17.3	과천 도서관	B	45	15.0
11	서울숲	P	33	11.0	동국대학교	P	45	15.0	화목원	B	43	14.3	중앙대학교	B	51	17.0	서울랜드	P	42	14.0
12	코엑스	B	29	9.7	감포 해수욕장	R	34	11.3	강대후문	S	39	13.0	안성천	R	50	16.7	국립과천과학관	B	40	13.3
13	광화문광장	P	28	9.3	경주박물관	B	29	9.7	집다리골	M	36	12.0	서운산	M	49	16.3	국립현대미술관	B	39	13.0
14	동대문(시장)	S	27	9.0	경주시내	S	27	9.0	삼악산	M	34	11.3	명동거리(시내)	S	46	15.3	정부과천종합청사	B	38	12.7
15	하늘공원	P	26	8.7	성건동	S	26	8.7	문배마을	M	32	10.7	대림동산	B	41	13.7	문원체육공원	P	34	11.3
16	예술의전당	B	25	8.3	문무왕릉	C	24	8.0	구곡폭포	R	29	9.7	죽주산성	C	38	12.7	청소년 수련관	B	23	7.7
17	롯데월드	B	22	7.3	밀레니엄파크	P	23	7.7	조각공원	P	17	5.7	내해호공원	P	34	11.3	내점길	S	17	5.7
18	덕수궁	C	22	7.3	석빙고	C	19	6.3	춘천댐	R	16	5.3	개미농장	B	31	10.3				
19	북한산	M	21	7.0	포석정	C	18	6.0					남사당전수관	B	29	9.7				
20	가로수길	S	21	7.0	반월성	C	17	5.7					낙원공원	P	25	8.3				
21	올림픽공원	P	20	6.7	대릉원	C	16	5.3					바우덕이묘	C	23	7.7				
22	어린이대공원	P	19	6.3	분황사	C	15	5.0					서일농원	B	21	7.0				
23	강남, 강남역	S	17	5.7									공설운동장	B	19	6.3				
24	여의도공원	P	15	5.0									너리굴문화마을	S	19	6.3				
25	창덕궁/비원	C	15	5.0									내리	S	15	5.0				
26	북악스카이라인	S	15	5.0									3.1운동기념관	B	15	5.0				
	계(장소수)		26		계(장소수)		22		계(장소수)		18		계(장소수)		26		계(장소수)		17	

*장소의 구분: 공원(P), 산·휴양림(M), 하천·호수(R), 문화재(C), 동네·거리(S), 다중이용건물(B), 기타(Z)

시는 인사동 등과 같은 동네 및 거리 유형(34.62%), 안성시는 내해호공원 등 공원 유형과 칠장사 등 문화재 유형(122.4%), 과천시 도서관 등의 특정건물 유형(113.3%), 경주시는 불국사 등 문화재 유형(221.3%), 춘천시는 구봉산 등 산 및 휴양림 유형(70.7%)과 공원(75.7%)이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⁴⁾.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원 유형과 문화재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장소성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자연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도시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장소 경험을 분석한 결과, '휴식 및 산책' 경험은 서울(46.15%)과 춘천(50.00%)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으며, '조망 및 감상' 경험은 안성(38.46%)과 경주(59.09%)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과천의 경우 '운동 및 놀이(41.18%)'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으나, '휴식 및 산책(35.26%)' 경험도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와 각 도시별로 장소성이 높다고 도출된 각 장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휴식 및 산책'과 '조망 및 감상'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산과 하천, 공원, 문화재, 문화공간 등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여 공간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장소성 유형

본 연구는 각 도시의 특성을 장소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장소성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별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장소성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장소성 높은 장소의

표 6. 도시별 주요 장소에서의 행태 경험 분석

	서울	안성	과천	경주	춘천	합계
휴식 및 산책	12 (46.15)	3 (11.54)	6 (35.29)	4 (18.18)	9 (50.00)	34 (31.19)
조망 및 감상 (경치, 볼거리)	1 (3.85)	10 (38.46)	0 (0.00)	13 (59.09)	3 (16.67)	27 (24.77)
운동 및 놀이	2 (7.69)	6 (23.08)	7 (41.18)	0 (0.00)	1 (5.56)	16 (14.68)
만남 (데이트, 모임)	6 (23.08)	2 (7.69)	0 (0.00)	2 (9.09)	2 (11.11)	12 (11.01)
공연 및 관람 (축제, 이벤트)	3 (11.54)	3 (11.54)	2 (11.76)	1 (4.55)	1 (5.56)	10 (9.17)
쇼핑	2 (7.69)	1 (3.85)	0 (0.00)	1 (4.55)	1 (5.56)	5 (4.59)
먹거리(식당)	0 (0.00)	1 (3.85)	0 (0.00)	0 (0.00)	1 (5.56)	2 (1.83)
기타	0 (0.00)	0 (0.00)	2 (11.76)	1 (4.55)	0 (0.00)	3 (2.75)
합계(장소수)	26	26	17	22	18	109

공간 유형별로 주로 경험하는 이용행태가 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공원, 산, 하천, 문화재와 같은 장소에서는 주로 휴식 및 산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 및 거리에서는 먹거리, 공연 및 관람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 유형 중 '만남'의 경우 다른 이용 행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장소의 특성을 더 자세히 나타내주는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만남'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요 장소에서의 공간행태와 공간기능을 중심으로 공간경험 중심형과 교류경험 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표 7 참조). 이는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간과 사람이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direct interaction)은 공간경험 중심형(spatial contact), 공간이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transaction)을 교류경험 중심형(human contact)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공간의 기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토대로 자연

표 7. 도시의 장소성 경험유형 분류 기준

이용행태	장소	경험유형	
휴식 및 산책 조망 및 감상	공원	자연자원경험	공간경험 중심형 (spatial contact)
	산·휴양림		
	하천·호수		
	문화재	역사자원경험	
먹거리	동네·거리	먹거리경험	교류경험 중심형 (human contact)
공연 및 관람		문화경험	
쇼핑		쇼핑경험	
운동 및 놀이	특정건물	운동·놀이경험	
기타		교육경험	

표 8. 도시 내 장소성의 경험유형 분류

자원형, 역사자원형, 먹거리주도형, 문화주도형, 쇼핑주도형, 교육주도형, 운동 및 놀이주도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표 8 참조).

공간경험 중심형은 공간과 사람이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사람이 물리적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장소의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남산, 한강, 경복궁과 같이 물리적 공간의 특성을 감상하거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교류경험 중심형은 공간이 배경 또는 행태적 장의 역할을 하며,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고, 주로 인적 교류(접촉)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장소의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인사동과 같은 장소에서 먹거리, 쇼핑 등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4. 각 도시의 장소성 경험 특성 분석

이상의 경험유형 분류 기준을 토대로 각 도시를 분석한 결과, 주거, 상업 등이 고르게 분포된 일반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안성, 과천의 경우에 장소성의 경험유형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반면, 자연 및 역사환경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특화된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춘천은 한 장소에서 여러 경험이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장소성의 경험유형이 통합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표 9 참조).

1) 서울시

서울시는 자연자원형(46.15%)과 만남 및 먹거리주도형(26.92%) 장소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선유도공원, 남산 등 공원과 자연자원이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경복궁, 덕수궁 등의 역사자원은 자연자원과

표 9. 도시별 주요 장소의 경험 분석

	공간경험 중심형		교류경험 중심형		계	
	장소수	비율(%)	장소수	비율(%)	장소수	비율(%)
서울	15	57.7	11	42.3	26	100
안성	14	53.8	12	46.2	26	100
과천	9	52.9	8	47.1	17	100
경주	17	77.3	5	22.7	22	100
춘천	13	76.5	4	23.5	17	100

분리되지 않고 나타났다. 즉, 기존 자원의 잠재력이 서울시의 장소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또한 강남역, 코엑스 등은 다양한 상업공간이 편리한 교통과 접목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공간에서 주로 먹거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3 참조), 앞서 표 6에서는 서울시의 장소성 높은 공간 중 먹거리 중심 공간이 없는 나타났다. 이는 강남역, 코엑스 등은 사람들이 주로 만남의 장소로 인식하지만, 실제 만남과 동시에 식사, 음주 등 먹거리와 관련된 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각 장소가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험유형이 분산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나타나고 그에 맞는 장소가 분화됨을 알 수 있다(그림 2, 3 참조).

그림 2. 군집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분석(서울시)

그림 3. 대응일치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구분(서울시)

2) 안성시

안성시는 자연자원형 장소와 역사자원형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나타난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문화재가 많지 않으며 청룡사, 죽주산성 등의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자원을 문화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실제 공원의 비중은 낮지만 문화재, 농장 및 농원 등이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유사하게 대부분 각 경험유형에 해당하는 장소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난다(그림 4, 5 참조).

3) 과천시

과천시는 자연자원형(61.54%) 장소와 문화주도형(31.25%)

그림 4. 군집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분석(안성시)

그림 5. 대응일치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구분(안성시)

그림 6. 군집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분석(과천시)

그림 7. 대응일치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구분(과천시)

장소가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다른 도시와는 다소 상이하게 문화주도형, 교육주도형 장소도 다수 응답되었으며, 역사자원형 장소는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악산, 청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신도시 계획과정에 의한 공원,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조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의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각 경험유형에 해당하는 장소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6, 7 참조).

4) 경주시

경주시는 역사문화공간이 중심을 이루며(90.91%), 다른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역사문화자원이 역사도시인 경주시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징적으로, 자연자원형 장소와 역사자원형 장소가

그림 8. 군집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분석(경주시)

그림 9. 대응일치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구분(경주시)

구분되지 않고 나타났다. 이는 대릉원, 첨성대, 천마총 등의 문화재는 역사자원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에게는 공원 등의 자연자원으로 인식되어 휴식, 산책, 운동, 조망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자연·역사자원형 장소에서 운동, 만남, 휴식, 조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태의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9 참조).

5) 춘천시

춘천시는 하천, 휴양림, 섬 등 자연자원형 장소가 대부분을 차지(88.89%)하고 있다. 이는 춘천시의 자연자원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일반인이 대부분 남이섬, 소양댐, 구곡

그림 10. 군집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분석(춘천시)

그림 11. 대응일치분석에 의한 장소성 유형 구분(춘천시)

폭포 등을 춘천시의 주요장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시와 유사하게 공간적으로도 도시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자연자원형 장소에서 운동, 만남, 휴식, 조망, 이벤트 등 다양한 경험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11 참조).

V. 요약 및 결론

최근 도시 내에는 다양한 문화와 경관적 특성이 무시된 채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장소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획일화된 대중문화, 경제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고유한 문화와 역사, 특성을 담은 공간에 동일한 공간적 구조와 형태가 양산되고 있다. 프렌차이즈 매장

등과 같은 규격화된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획일적인 장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도시에서 다양함 행태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험유형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각 공간을 공간경험 중심형과 교류경험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의 경험은 만남, 조망 및 감상, 휴식 및 산책, 공연 및 관람, 운동 및 놀이, 쇼핑, 먹거리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휴식 및 산책, 조망 및 감상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도시내 공간의 특성과 연계하면 도시 내 경험은 크게 공간중심형과 교류중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도시 내 장소성 높은 장소를 계획·설계하는데 있어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각 도시 내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산·하천·공원 등 자연적 요소와 문화재 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 도시 내에서 장소성이 높은 공간으로 인식되며, 도시 내 장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3) 각 도시별 장소성의 대응일치 분석과 군집 분석의 결과를 고찰한 결과, 서울시, 안성시, 과천시와 같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균등하게 존재하는 일반도시의 경우, 장소성의 경험유형이 도시 내에서 장소별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는 각 공간이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태가 각 공간에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반면, 경주시, 춘천시와 같이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의 특성이 뚜렷한 관광도시의 경우, 특성화된 장소에서 여러 행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의 특성을 담은 주요 공간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여 그 곳에서 다양한 행태가 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장소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 분석에 기초하여 장소성 및 장소경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 내 장소성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도시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분석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로부터 연결되는 익숙한 장소성과 새롭게 구현되는 신선한 장소성을 조화시켜 높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장소성을 높은 장소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여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므로, 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현상학적 개념인 장소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제 장소에서 장소성의 형성 패턴을 추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기법 개발을 위해 향후 장소성의 유형에 따른 장소성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도시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전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 1. 대응일치 분석은 장소의 다양한 경험을 다차원 좌표로 입력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주 2. 환경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장소성을 느끼는 과정도 인간이 환경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장소성 높은 장소에서의 경험은 자극-반응 과정 중 반응에 해당한다. 반응은 행동적 반응, 감정적 반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임승빈, 2007), 본 연구는 환경계획 및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으로 물리적 세팅과 관련이 깊은 행동적 반응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 주 3. 설문조사 결과, 장소성이 높은 장소로 응답된 전체 장소수는 서울 210개소, 광주 115개소, 춘천 104개소, 안성 88개소, 과천 76개소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장소성이 높다고 응답되는 장소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 이상의 응답자가 장소성이 높은 장소라고 응답한 장소는 서울 4개소, 광주 9개소, 춘천/안성/과천 8개소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의견 일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장소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시민들의 선호가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주 4. 설문조사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유형별 장소 응답을 모두 합한 결과이므로 100%를 넘을 수 있다.

인용문헌

- 권윤구, 정윤희, 임승빈(2011) 인사동 가로와 장소성 구조모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6(2): 139-151.
- 김경태, 정성관, 유주한, 이우성(2007) 생태적발자국 지수 분석에 따른 도시유형 분류 및 관리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2(1): 7-18.
- 김연금, 성종상(2005) 전주시 덕진공원의 장소성. 한국조경학회지 33(3): 65-77.
- 김오형, 이명훈(2010) 수도권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 간 내적 계층성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5(2): 207-217.
- 김지연(2007) 역사적 컨텍스트를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 성곽이 지나는 동대문 운동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철(2010)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특성 및 유형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혜(2004) 장소 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재상(2005) 도시경관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형성모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재상, 최형석, 이정원, 임승빈(2006) 도시 이미지에 기초한 도시유형 분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1(3): 7-20.
- 이문희(1989) 한국 도시의 특성에 관한 요인 및 유형분석. 정책과학논총 5: 161-181.
-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2(5): 169-183.
- 이석환(1998) 도시가로의 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환(1998) 장소추구의 기제와 내부공간 이용자의 장소추구 양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10): 73-83.
-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서울: 보문당, pp.37-47.
- 임승빈, 허윤선, 정윤희, 권윤구, 변재상, 최형석(2011) 도시 내 장소성 분포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6(3): 67-78.
- 장성주(1986) 건축적 장소의 체험에 관한 분석연구: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 박준서, 임승빈(2011) 환경계획·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sense of place'와 'placeness' 용어 비교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1): 14-29.
- Brown, G., and C. Raymond(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landscape values. Applied Geography 27(2): 89-111.
- Entrikin, J. N.(1991)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Basingstoke: Macmillan Education.
- Norberg-Schulz, Christian(1980)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 Patterson, Gene Edward(1992) Sense of Place in an Emerging Home Area: Investigation in the Bear Creek Area of King Coun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 Relph, Edward(1967) Place and Placelessness. 김택현, 김현주, 심승희 공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 Steele, Fritz(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lishing Company.
- Thornquist, Lisa Mary(1992) Home on the Range: Sense of Place in Economically stressed A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 Yi-Fu Tuan(1979)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희, 심승희 공역.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1995

원 고 접 수 일: 2011년 5월 4일
 심사 일: 2011년 6월 19일(1차)
 2011년 12월 15일(2차)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0일
 4인익명 심사필